

# 금사과 이어 금배...손떨리는 과일값

### 사과·배 도매가격 평년보다 2배이상 올라...사과 122%·배 146% ↑

### 7~8월 여름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 이어질듯...추석 가격은 안정 전망

과일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와 배 가격은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생육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상황을 비축량 시장 출하로 해소하려 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을 잡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름과일 출하 전까지는 과일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6월 첫 주 사과(부사·10kg) 평균 도매가는 8만6783원으로 전주(7만7912원)와 평년(3만9077원) 대비 각각 8871원(11.4%), 4만 7706원(122.1%) 비싸다.

특히 사과 도매가는 지난 3월 과일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3월 9만 3822원에 이어 6 일에는 10만 5341원을 기록하는 등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지난 달 사과 반입량이 전년보다 48.6% 감소했고, 6월

이후 출하량 역시 1만 9000 t (2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결과다.

업친데 났진격으로 올 상반기 사과 가격이 비싸지자, 정부가 저장 중이던 2023년산 후지 출하 시기를 앞당긴 것도 이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배 역시 출하량 감소로 인해 도매가가 계속 치솟아 평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배(신고·15kg) 도매가는 지난 6월 첫 주 기준 평균 14만5964원으로 전주(13만6670원)보다 9294원(6.8%) 올랐고, 평년(5만9172원)에 비해서는 8만6792원(146.7%) 높은 평균가를 형성했다.

배 도매가는 지난 3월 10만원 선을 넘어선 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 6일에는 14만 9772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배 역시 6월 이후 출하량 감소가 전망된 데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비싼 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장배 출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달 배 출하량 역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87.1%, 8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

간 배 도매가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7~8월 햇사과가 출하되고 대체품목인 여름 과일이 공급되면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또 올해 사과와 배 생육상황이 양호해 성수기인 오는 7월과 추석 성수기 시점에는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잦은 냉해 피해가 발생했던 반면, 올해는 봄철 냉해 등 저온피해가 적어 사과 생육이 평년 대비 양호한 상황이다.

농업관측센터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사과 농가들은 31.9%가 평년보다 '사과 생육이 좋다', 50.0%는 '비슷하다'라고 답변했고, 49.1%는 전년보다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배 역시 해충 발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봄철 개화기 배 피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냉해 등 저온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농가들의 70.2%가 전년 대비 생육이 좋다고 답변했고, 68.7%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체적인 작과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KREI는 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유해조수까지의 습격에 애타는 농심

### 작물 해코지에 열 받지만...무리한 포획보다 예방책 마련 시급

처음 짓는 농 농사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파종한지 일주일 만에 싹이 올라왔다. 찬찬히 둘러보니 군데군데 이 빠진 것처럼 싹이 나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띄었다. 종자가 조금 깊어 들어가 아직 안 나왔으리니 하며 때우면 되겠다 생각했다. 이를 대비해 여분의 종자를 남겨 두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콩 머리와 몸통이 잘려 나뉘는 콩 싹을 보자 기분이 확 상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까치 등 이른바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집들은 콩을 파종할 때 조류기피제를 발랐다든 것이다. 새가 싫어하는 철분을 압하는 '철분 코팅술'인데 콩 종자 5kg에 철분 2kg, 조류기피제 150ml, 소석고 200g을 섞어 파종하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이나 가축에 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별종 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나 분포를 훼손하는 멧돼지도 포함된다(黨便)이니 날 탐할 정도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도 이에 속한다.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 모든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다 포함할 정도로 많아서 놀라운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긴다.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모두 유해조수로 보고 퇴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죽여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함부로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중 대표 선수가 까치다. 도심에서는 비둘기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개채 수가 급증해 문제를 유발하면서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까치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유해조수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농촌에 피해가 심해지면서 급기야 수렵까지도 허가했으니 진정 민폐 일인자인 셈이다.

사람은 살아남아 있어 농업, 어업 등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채취하기 위해선 일정한 공간과 자연환경의 힘을 빌려 산다. 자연환경 속 우리 이웃인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동물들이 인간이 정한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유해조수는 200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까치는 생태 순환 과정 속 당연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텐데, 심어 놓은 종자를 파헤치고 잘 익은 과실을 마구 파먹는다고 해서 꼭 유해조수로 지목해 구제(驅除·몰아내 없앴) 대상으로 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까치와 달리 제비처럼 사람의 생활공간에 들어와서 밭과 논, 텃밭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해충구제에 도움을 주거나, 농기계의 뒤를 따르며 먹이 활동을 하면서 논과 밭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백로류 등 많은 동물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피해를 준다고 막무가내로 잡아 죽이는 것은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멧돼지·청설보·두더지·쥐류와 오리류 등이다.

이와 관련 자신의 영역을 넘어 생존활동을 하는 야생동물이 못마땅해 전쟁이라도 하듯 밭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처사를 보며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생산하는 작물에 해코지를 하는 유해조수에 무한의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농부의 마음에서 이미 젖어 있어서 일가.

/bigkim@kwangju.co.kr

## 농협 전남·광주본부, 한마음 농촌일손지원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4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한마음 농촌일손지원' 행사를 실시한 전남농협(왼쪽)과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봉사활동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한마음 농촌일손지원' 행사를 실시한 전남농협(왼쪽)과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봉사활동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 전남본부, 일손돕기·폐비닐 수거 등 광주본부, 교통공사와 협약 체결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4일 '전남농협 한마음 농촌일손지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농촌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남농협이 주관하고 지자체 및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8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전남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농작물 수확 등 영농지원 활동 뿐만 아니라 일손돕기 종료 후 깨끗한 농촌마을을 위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수거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농협전남본부는 농업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또 누구나 쉽게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이번 동시 영농지원 농촌 봉사활동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한마음 농촌일손지원의 날 행사'는 범농협 영농지원 봉사활동으로 일손 부족 현실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도 지난 14일 광주 시 북구 충효동 일대에서 '범 농협 한마음 농촌일손지원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일손지원의 날 행사에는 광주 관내 농협 계

열사 사무소장의 협의체인 시너지협의회와 광주 시 농업동물정책과, 광주교통공사 임직원, 농협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또 일손돕기에 앞서 농협광주본부와 광주교통공사는 농업·농촌 활력 제고와 양 기관의 동반 성장·발전을 위해 행복농촌 이음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사업과 연계한 농촌지역 공익사업 추진 ▲지역농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판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영농활동 지원 및 소외지역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대중교통이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교통공사와 농촌활력화를 위해 함께해 주신 데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 상호 협업을 통한 ESG경영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어촌공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중간물떼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를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활동이 인정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경종 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전담관리 기관으로, 시범사업의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참여자와 점검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전화 상담실 운영, 사업성과 관리 등 시범사업 모델의 현장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도 56개 시·군의 107개 단체로, 국내 최대 농경지인 전남지역에서 34개로 가장 많은 단체가 선정됐다. 한편, 이달부터 중간 물떼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활동별 사업참여자의 서면 이행 증명 및 현장 이행점검이 시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sup>2</sup>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타경 60711	1	여수시 만흥동 산161 31339㎡ [공유자갈목 2/11지분]	임야	19,791,800 19,791,800	일괄매각, 지분매각 2/11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	광양시 광양읍 임산리 262 172.3㎡	대	37,326,700 37,326,7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매각제외, 경계복원확약요
2023타경 60735	1	동소 262-1 35.7㎡ [물건번호1·토지매매]	대	4,440,000 4,440,000	행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90 185㎡	답	35,200,000 35,200,000	행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3타경 60988	3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127 1600㎡	답	16,450,000 16,450,000	지분매각, 농지취득
	4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 141 1974㎡ [공유자박민규 1/3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제한, 일부도로]	답	1,223,645,780 1,223,645,780	일괄매각, 목욕1,4
2023타경 61103	1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381-2 846㎡	대	215,000,000 215,000,000	지상제외건물및 목욕6지하물탱크
	2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382-1 387㎡	대	173,000,000 173,000,000	지상제외건물및 목욕6지하물탱크
2023타경 60490	1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382-1 387㎡	대	18,500,000 18,500,000	행지, 농지취득자격
	2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379 370㎡	전		증명요
2023타경 5776	1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20, 106등 6층 606호	아파트	116,000,000 116,000,000	일괄매각
	2	여수시 돌산읍 신북리 632 691㎡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125,000,000 125,000,000	일괄매각
2023타경 5950	1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20, 106등 6층 606호	아파트	215,000,000 215,000,000	일괄매각
	2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20, 106등 6층 606호	아파트	173,000,000 173,000,000	일괄매각
2023타경 60490	1	광양시 광양읍 율천리 4-1 74㎡	도로	2,700,000 2,700,000	일괄매각
	2	동소 7-2 17㎡	도로		
2023타경 60612	1	동소 7-3 14㎡	도로		
	2	동소 52-1 87㎡	도로		
2023타경 60612	1	동소 90-3 33㎡	도로		
	2	동소 90-3 33㎡	도로		

● 고공민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물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 경우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특별매각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 및 민사집행법 제140조의2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락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